

문화예술로 만나는 '도시문화'

ACC, 11월까지 하반기 인문강좌 웹툰·영화·시 등 주제 전문가 강연 5개 강좌 동시 수어통역 전강 무료

웹툰, 영화, 시, 음악, 사진 등. 예술과 도시의 관계는 상보적이다. 도시를 배경으로 예술은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예술의 활성화로 도시는 확장될 수 있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올해의 주제로 도시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반기에 예술과 도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인문강좌를 마련했다. 7월~11월(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ACC 극장3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 주제는 '예술을 통해 본 도시문화'.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을 비롯해 영화, 시, 음악, 사진 등이 모티브다.

먼저 오는 31일에는 웹툰 '조선왕조실록'의 작가 무적핑크(변지민)가 강사로 나선다. 최고 조회수 200만회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조선왕조실록' 등을 토대로 'K-역사도 케이팝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무적핑크는 강연에서 일본, 대만, 중국 등에 수출한 웹툰 '조선왕조실록', '세계사톡', '삼국지톡'의 사례를 매개로 강연한다.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지만 관점이 상이한 동북아시아 독자들을 만나며 얻은 식견과 가치관 등은 새로운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에는 영화 전문 저널리스트 이지혜 씨



올해 상반기 진행했던 인문강좌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봉중 전남대 교수. (ACC 제공)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영화의 밤' 진행자)가 자신의 인생 영화에서 발견한 도시의 얼굴과 욕망을 풀어낸 예정이다. 텍스트로는 영화 '1987'을 비롯해 '퍼펙트 데이즈', '건축학개론', '존윌4' 등이다.

시를 모티브로 기후위기 극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있다. 9월 25일에는 시인인 나희덕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나 시인은 인간과 자연 관계에 대한 사유와 공존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예술의 실천적 방향 등을 이야

기한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뿌리에게'로 등단한 나 시인은 '그곳이 멀지 않다', '가능주의자', '파일명 서정시' 등 다수 창작집을 펴냈다.

클래식 음악을 알아보는 안우성 지휘자의 '음악을 통한 취향의 발견'은 오는 10월 30일 진행된다. 안 지휘자는 그동안 JTBC '특파원 25시' 등 다수 방송과 강연 등에 출연하며 일반인들이 클래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펼쳤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여린리와 마법', '비밀 결혼' 등에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 음대 석사과정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미주류 언론에서 33년간 포도 저널리스트로 역사적 현장을 앵글에 담은 강형원 사진가의 강연도 있다. 마지막 11월 27일에는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정체성 발견'을 주제로 강 사진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시각 자료를 통해 들려줄 예정이다. 폴리처상을 두 번 수상하기도 했던 그는 디지털 시대 만국 공용어인 사진으로 이야기와 콘텐츠를 접목한 강연을 펼쳐오고 있다.

5개 강좌 동시 수어통역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 강연 당일 AC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한다.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가능)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ACC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문강좌를 펼쳐왔다"며 "이번 하반기 강좌도 웹툰, 영화, 시, 음악, 사진 등 대중과 친근한 주제로 구성돼 있어 흥미와 재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연의 문화카페

지난해 강릉과 제주의 아르떼 뮤지엄을 찾은 기자는 흥미로운 광경을 접했다. 다름 아닌 수학 여행단이었다. 전국각지에서 온 듯한 고등학생들은 수십 여 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주차장에 속속 도착했다.

아르떼 뮤지엄은 지난 2020년 9월 제주에 첫 선을 보인 새로운 개념의 전시관이다. 일명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관으로 불리는 이곳은 1호점인 제주를 시작으로 여수, 강릉 등 세 곳에 건립됐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미술관이지만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홀로그램,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시킨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들어섰다. 지난 19일 전국에서 네번째로 문을 연 '아르떼 뮤지엄 부산'이다. 세계 최대 규모에 걸맞게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한다. 부산시는 민간자본 200억 원을 투입해 1700평 규모 전시관에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19개 몰입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르떼 뮤지엄 부산' 뉴스가 전해지던 날,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GMAP)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선정을 계기로 광주를 미디어아트의 발신지로 키우기 위해 건립한 컨트론타워다. 실제로

'갈 길 잃은' (?) 미디어아트 광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제주시 애월읍에 문을 연 '아르떼뮤지엄 제주'는 4년 만에 전국구 핫플레이스가 됐다. 성인 기준 1만 7000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입장료에도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다. 과거 스피커 제조 공장(면적 1399평, 높이 10m)을 리모델링해 열 개의 주제로 나눠 아나몰픽, 프로젝션 맵핑, 홀로그램,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는 관람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특히 관람객이 처음 만나게 되는 '꽃' 전시관에 들어서면 제주의 상징인 수만 개의 동백 꽃잎이 천장과 벽면에서 피었다 사라지는 황홀경이 펼쳐진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폭포'(Waterfall-NYC)와 코엑스의 '파도'(WAVE)작품으로 세계적인 역량을 뽐낸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주) 디스트릭트 코리아가 화려한 색채와 사운드를 입히고 대형 거울을 이용한 수십 개의 프레임으로 몰입도를 높인 효과다.

최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또 하나의 몰입형

광주시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창설,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등 인프라 조성에 일부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광주에는 미디어아트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의 장(場)이 많지 않다.

특히 핵심 인프라인 GMAP의 스케일과 콘텐츠는 제주와 강릉 등에서 '눈이 높아진'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타 도시들이 경쟁력 있는 몰입형 상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유치해 지역민들의 안목을 높이고 관람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수학여행단은 고사하고 미디어아트 광주의 존재감조차 찾기 힘들다. 국내 유일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타이틀이 멧찍은, '외화내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지역 어르신 찾아 예술 나누고, 활력 더하고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요양시설 5개소서 다음달까지

지역 예술단체와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진다.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대표 고희영·자타공인)이 전통예술프로그램 '예술 나누기, 활력 더하기'를 오는 8월까지 지역 노인요양시설 5개소에서 진행한다. (기관별 각 5회 예정)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노인요양 전통예술프로그램지원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전통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마음실버복지센터(광산구 장덕동), 쉼터요양원(북구 청풍동)에서는 지난 6. 13. 20일 공연을 성료했으며 오는 8월 3일, 10일 행사가 남아 있다. 첨단원광실버홈과 수안시니어케어 요양원에서 오는 31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행복실버케어요양원·바라밀실버하우스에서 오는 30일, 8월 5. 6. 12. 13일 공연이 펼쳐진다. 구체적인 시간은 시설별 상이.



'자타공인'이 한마음실버복지센터에서 공연을 펼치는 장면.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 제공>

프로그램은 소고, 장구 등 타악기 시연 및 체험, 상모돌리기, 민요제조 '너영 나영' 배우기 등으로 구성된다. 소품 만들기나 소원 쓰기 등 체험형 코너를 통해 어르신 관객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한편 2024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상특정형공연(퍼포

먼스)을 통해 문화예술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자타공인 고희영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전통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근현대 미술품 '해외 판매' 가능해진다

개정된 '문화유산법' 23일부터 시행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 작품은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일컫는다. 그간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 허가받아 받아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

이를 두고 미술계 안팎에서는 근현대 시기에 할

당한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바꿔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해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재활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 뜸,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1 인종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062) 720-2000